

社說

광주 학동 참사 제도개선 추진도 더디다는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몽규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례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사과한 바 없다"며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먼저 당사자들에게 인간적 예의를 갖춰 만나라"고 강조했다.

원팀의 각오 광주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

여자프로배구단 광주 AI페퍼스가 공식 출범했다. 10년 만에 창단된 제7구단이자 호남권의 유일한 배구단으로 광주는 물론 전남, 전북까지 흥판을 확보하게 됐다. 초대 사령탑은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등을 지낸 김형실 감독이 맡았으며 평균 연령 20.4세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신생팀의 패기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한 사람의 개인적 기량보다는 팀원, 원팀정신을 강조했다.

시론



퇴허자

광주대각사주지 제주퇴허자명상원장

인생분무담(人生本無筭)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을 처음 만났을 땐 '인생은 본래 답이 없다'는 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살다보니 '인생은 무진장의 답이 있다'는 뜻을 알게 되었다. 세상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 세상에 사라지는 것보다 생겨나는 것이 더 많다.

돌아온 약가방

있어야 할 약가방이 어떻게 광주공항에 있었던 말인가?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추측을 해보았다. 하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광주공항 대기실 벤치에 약가방을 놓고 깜빡 잊은 채 탑승을 했거나 아니면 광주공항 화장실 안의 옷걸이에 약가방을 걸어둔 채 나왔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다.

자치칼럼



이계양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품자주자 시민들 공동대표

지금 필자가 근무하는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자발적 불평학교(제로웨이스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언문을 작성하고 '푸른꿈 그린다짐'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짐의 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 등이다.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고

러시아의 소설가 레오 N. 톨스토이(1828~1910)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남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는 것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행복을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고 했다.

독자투고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IT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대의 경우 아직 법·도덕적 관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올바른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침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위장수사, 비공개수사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처벌기준도 마련되었다.

\* 외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아침물어는詩

까지가 운다

고경자



오후 세시 아파트 어디쯤에서까지가 운다 반가운 소식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안부들 들어오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아침과 저녁 사이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을을 닮은 사람이 부르는 소리처럼 동그렇게 오려 보면 심장 하나가 울음 하나로 물들어 간다 (시집 '사랑의 또다른 이름', 시산책사, 2020)

【시의 눈】 가을 새가 푸르게 날다. 상수리나무 우듬지의 휘파람새. 햇볕 익은 바위에 제 발뚨를 두들는 솔개를 봅니다. 버드나무 치맛자락에 춤바춤 익히는 뱀불기도 지나갑니다. 바다에선 파도 청수리에 튀는 물고기를 채려는 갈매기의 눈빛이 더 서늘해져갔지요. 시인의 동네처럼 우리 집도 까치가 많습니다. A등을 잊는 마로니에나무 주변에 마주치지요. 무슨 소식을 줄까. 하지만 사실 난 금예의 반쯤을 기다리답니다. 오전 까치들은 집 앞 호두나무잎을 종이삼아 '깡깡' 타투를 치지요. 오후의 까치는 먹이를 주곤 하는 B동 할머니를 기다리랍니다. 더 목을 기다들지요. 그걸 건너다보면 노트북 자판에 타투 글을 옮깁니다. 곧 프린터의 종이를 뽑아봅니다. 이리! 서툰 바늘 끝에 피가 났군요. 눈부신 창공에 단풍을 점묘한 산이, 방금 내 앞에 커피 잔을 놓는 카페 아가씨의 하얀 팔이 울려와 있습니다. '나' '오래낸 심장'을 보내려 '깡깡' 자판 속의 까치를 불러옵니다. 소식을 울까. 내 심장 또한 단풍타투로 '물들어'갑니다. 고경자 시인은 광주에서나 광주대학원 문창과를 졸업했고, 2011년 '시외사람'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 '하이에나의 식사법'(2015), '고독한 뒷걸음'(2018)을 펴냈습니다. 그는 자아를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고투적 이미지로 전환·전연합니다. <노홍수·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취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사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문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제1호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